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13차 정기
일시	18. 03. 26 18 : 45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1/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	○		○	○	○	○	○	○	○	○	○	○

□ 보고 안건

1. 신입 회장단 소개

: 7대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기호 2번 그림, 학생회장 글로벌금융 조상호, 부학생회장 경제 김가영 당선.
: 인문대학 보궐선거 4월 3일 종료.(연장의 경우 4월 4일 종료.) 개표 이후 24시간 이후 당선 확정 공고
게시 관계로 2018-1학기 4월 4일 18:30 예정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참석 어려움.

2. 단위별 학생회비 배분 완료

: 단위 별 확인 요망.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공고문 게시 완료

: 3월 25일 18:30분 온라인 게시 완료. 오프라인 게시 예정.

4. 주점 공간조정위원회 공고문 게시 완료

: 주점공조 3월 31일 예정. 주점 진행 단위 참여 요망.

□ 논의 안건

1. 선거시행세칙 개정

: 표현 모호 부분, 세칙 상 충돌 부분 개정 시도. 공지방 '세칙 개정요망' 파일 참조 요망.

2. 예산자치제

: 지속적인 이월로 인한 증대 우려. 공지방 수정시도내용 참조 요망.

-동아리연합회: 기존 형식과 달리페이백 형식(사용분에 대한 예산자치제 신청, 해당 단위의 예산 집행 이후 동아리연합회 예산자치제 신청/지급) 도입하여 진행 예정.

-예술대학/인문대학: 큰 단위의 예산자치에 이후 작은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학생자치상의 예산자치에 이용에 더욱 용이할 것. 개정 필요.

-자연과학대학: 최대한 예산자치제 금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기존 회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예산자치제의 의미와 총학생회의 자치권 사이 균형이 필요. 이전 예산자치제 시행 자료 업로드 요망.(총학생회: 가능. 이전 자료 공지방 업로드 분 참조 요망.)

-사회과학대학: 지원 기준이 너무 높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지원 기준 완화 필요.(총학생회: 전체 학생의 학생회비로 지원받는 만큼 예산자치제 시행규정 5항의 가,나 항목 충족에 대한 기준이 조정되어서는 안 될 것.)

-경영경제대학: 예산자치제 해당 금액 이월은 중앙대학 내 학생단위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생각. 그러나 지속적 금액 누적으로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위체 자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이월 한도를 정하여 두 취지의 중간점을 찾는 것을 제안.

-총학생회: (1)기존 예산자치제 안으로 가는 것, (2)공지방에 올라간 개정 시도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 (3)이월 한도를 정하여 이월과 기존 취지의 두 방면을 고려하는 것. 의 세 가지 안으로 압축.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논의 요망.

3. 반성폭력 회칙 개정 TFT 구성

: 기존 위촉 위원의 일정 상 여러 참여인원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지속적인 회의 불가. 해결방안 필요. 중앙운영위원회가 아예 배제되는 것은 허울뿐인 TFT가 될 위험성이 있음. 위촉위원 변경 또는 TFT 구성원 수정에 대한 논의 필요.

-사회과학대학: 꾸준히 중운위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TFT 설립 의미에 맞음. 의견 수렴의 의미에서 TFT내 완전한 중운위 배제는 어려움.

-총학생회: 일정 취합 결과 수요일 오전 중 TFT 정기회의 일정 확정 경우 동아리연합회 민사회 부회장, 목요일 오전 중 TFT 정기회의 일정 확정 경우 민현기 자연과학대 회장과 정수형 사회과학대 부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TFT 정기회의 일정 확정 이후 중앙운영위원회 공지 예정.

□ 기타 안건

1. 총장선출제

-약학대학: 총장선출방식과 장단점에 대한 자료 내용 숙독. 각 임명제간의 장단점 파악까지 진행.

-간호대학: 국립대와 사립대의 경우 매우 상이.

1) 사립학교 법 내 학교 법인과 사립대학 경영자의 장을 정하는 권리에 대한 명시 존재. 법안 개정이 없다면 현 상황 변경 어려울 수 있음.

2) 총장추천위원회 혹은 전 구성원 직접선거 등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비율에 대해 학내 구성원 간 의견 상이할 수 있음. 구성원 전체 참여의 직접 투표 방식 진행 어려울 가능성.

4) 구성원 의견 반영 비율이 설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였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5) 현 완전임명제 진행 이후 중앙대학교가 받은 수혜와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필요.

6) 투표권이 주어진 대학의 경우 직접 선거에 의한 학내 구성원 공약이 반영이 되는지,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 되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는지 등 정확한 파악 필요.

대학가 총장선출에 대한 직선제 요구는 대부분 정부 교체 이후 국립대를 중심으로 진행 중. 중앙대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거한 사립학교이므로 관련 논의가 국립대 예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사회과학대학: 법률상 중앙운영위원회 논의가 무효화 될 가능성 다분. 기존 전공개방과 관련한 TFT 진행만 보아도 그 진행상 문제 다발. 본부 실무자를 포함한 총장선출 TFT가 진행된다면 관련 우려를 조금 덜 수 있을 것. 사립대학은 구조적으로 법인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 사립학교 내의 문제점들이 총신대 등의 타 대학에서도 발생 중이므로 대학별 현황 공유가 관련 내용 논의 구체화에 도움이 될 것. 광역화 역시 미국 모델을 적용하려 했으나 적용상의 문제로 실패한 정책.

-자연과학대학: 외국 대학의 총장선출방식의 경향과 한국의 사례를 서로 비교할 필요. 외국 선출방식 경향이 가지는 의미, 예컨대 대학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한 중운위 내 논의 전제 통일 필요.

-인문대학: 대학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필요. 대학이 어떤 것이며, 총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운위 내 합의가 필요.

*4월 9일 중앙운영위원회 14차 정기회의 논의 필요 사안

1. 자료집 숙독

2. 대전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단과대학별 의견 제출/논의(총장의 역할, 사회 내 대학의 의미)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위임장

: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위임장 3월 30일까지 송부 요망. 공석은 제적 대표자 수에서 제하며 선출된 학년 대표자 외 성명 제출 불가. 100명 이상 단위의 경우 회칙에 의하여 의결권 2개 배정. 이외 질문사항 문의 요망.

-예술대학: 학과 회장 불참 시 위임에 대한 질문

-총학생회: 학과 회장 불참 시 학과 집행부 위임/참석하는 경우 있음. 기숙사 출입시간 관련은 논의 이후 확정시 공지할 것.

3. 동작구 원탁회의

: 동작구 원탁회의 참석 요망. 각 단위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내 참석 가능 인원 취합 요망.

-오전팀 (9~12): 현재 참석자 없음.

-오후팀 (13:30~16:30): 자연과학대학 민현기 회장, 총학생회 이승주 부총학생회장.

4. 단학대회 날짜

-예술대학: 진행예정 없음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약학대학: 미정

-자연과학대학: 4월 2일 월요일

-사회과학대학: 4월 11일 수요일

-간호대학: 4월 3일 화요일

5. 단위 별 행사 내용 공유 요망

-사회과학대학: 전공개방모집제도 관련 간담회 개최 예정. 본부 주최. 행정부총장 참석 예정.

6. 사회과학대학 발의 - 장애학우 학내행사 참여 관련

: 축제 등 학내행사 참여에 대해 배리어프리 환경 제공 필요.

-총학생회: 관련 의견취합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연계, 환경 제공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예정.

7. 비지토링 - 단과대학 방문

: 3월 27일 인문대학, 28일 예술대학 예정. 28일 예정이었던 자연과학대학 방문 4월 5일 18:30으로 조정.

8. 사회과학대학 발의 - 학내 구성원 전반 성평등 교육 관련

: 교수 성평등 교육에 대한 내용 진행사항에 대한 논의 필요. 현실적인 교육 내용과 교육 미이수시의 제제 내용 등에 대해서도 파악 필요.

-자연과학대학: 온라인 교육 내용 현황에 대한 파악 필요.

-총학생회: 해당 안건 집행부 내 지속 논의중. 교직원 대상 교육 내용에 대한 사안 파악 예정.